

2020년 6월 2일 **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이가인(2240) /제공일: 6월 1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·수출 대책 추진 - 총 예산 최대 30억원 투입, 약 12천톤의 소비·수출 촉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'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발표(5.1.) 이후, 정부비축·출하 정지·소비홍보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중
- ◆ 이번 대책은 기존 수급안정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,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2천톤의 햇마늘 소비·수출을 촉진
 - (수출 지원) 수출물류비 지원(기존 7% → 14%), 현지 유통업체 판촉비·언택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6천톤 확대
 - (소비·홍보) '너 마늘 사랑해, 1일 3쪽'을 통일된 슬로건으로 사용, 온오프라인 최대 100회 기획전 실시 등을 통해 4천톤 소비 확대
 - (씨마늘 국산화) 국산 씨마늘을 사용한 농가만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2천톤 수요 확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“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, 약 1만 2천톤의 소비·수출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”고 밝혔다.

-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'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'에 따라 정부 비축, 출하정지, 소비홍보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,
-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일 대책에 포함된 소비·수출 진작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.

- (해외 수출)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 및 언택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미국시장 등에 약 6천톤의 마늘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(물류비) 선박·항공 물류비에 대한 추가 지원(기존 7%→14%) 기간을 올해 연말(당초 '20.5.31.)까지 연장한다.
- (마케팅 지원) 현지 유통업체 오프라인 판촉과 함께 현지 유명 셰프 등의 레시피 영상 제작·송출 등 언택트 마케팅도 병행한다.
- (소비·홍보) 온·오프라인 마켓 기획전 개최 등 판촉을 실시하고 TV 예능·유명인 SNS를 활용한 레시피 확산 등 온·오프라인상 모든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.
- (온라인 기획전 개최) 공영홈쇼핑,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최대 100회까지 기획전을 실시하고, 그와 병행해 각 지자체 자체 온라인 판매물(예 : 경북 사이소)에서는 수시로 기획전을 실시한다.
- (대형마트 판촉)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마트와 협력하여 카드 할인 행사 등 각종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, 6월 한 달 동안 전국 하나로 마트 내 마늘 소비 영상(유튜버 쓰양 협조)을 송출한다.
- (TV 예능·SNS) '맛남의 광장' 등 유명 예능을 활용하여 마늘의 효능을 홍보하고, 쓰양·홍윤화 등 유명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마늘 레시피, 먹방 콘텐츠 등을 제작·홍보한다.
- (직거래 장터 운영) 일반 소비자, 농식품부 및 그 유관기관(농협, 주산지 지자체 등)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11회 운영한다.
- (선물꾸러미 증정) 농식품부 장관·차관 명의의 마늘 선물 꾸러미를 제작하고, 각부처 장·차관급 인사와 오피니언리더 등에게 전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.

○ (단체 급식) '대한영양사협회'와 협업하여, 영양사가 단체급식시 활용가능한 마늘 교육·홍보자료를 개발하고, 문자·메일·카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한다.

□ (씨마늘 국산화) 농가가 주로 사용하던 저렴한 중국산 씨마늘을 국산 씨마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.

○ 농협 계약재배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조건*을 '국산 씨마늘' 사용 농가로 한정하여, 농가의 국산 씨마늘 사용을 촉진**할 계획이다.

* 개정 : (현행) 마늘 → (개정) 마늘(국산 종자를 사용한 마늘에 한함)

** 일정 : (개정)'20.6월→(시행)'21년산 마늘 수급안정사업 사업자 선정('20.9월~)

□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“금번 소비촉진 대책으로 햇마늘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, 시장·산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 수급여건 변동에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